그 사람 지금은

(34) 이대순 前 체신부장관 〈하〉

"92년 3黨 합당 후 '토사구팽'…정계 은퇴 결심"

국회의원 재선과 체신부 장관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이대순(75) 전 장관은 1988년 13대 총선부터 시련의 시절을 견뎌야 했다.

우선 이 전 장관은 소선거구제 하에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민주당의 황색바람에 밀려 박상천 현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했다.

이 전 장관은 낙선 후 한국통신공사 이사장으로 갔다. 그는 이곳에서도 전기·전자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했다.

"기업체들에 전화교환기 개발을 독려하고 개발한 기계를 모두 사서 농촌에 설치하는 등 전자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당시 통신공사 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맞먹을 정도였으니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준 것이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한국의 전기·전자산업이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는 1992년 14대 총선 때는 서울 강남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지역주의가 고착화되면서 전남에서는 출마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준비하던 중 3당 합당이 일어나면서 공천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강남갑에는 현역의원인 황병태 의원이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됐다. 하는 수 없이 새로 만들어진 강남을 지역구를 노렸는데 이번에는 김만제씨가 공천을 받았다.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탈당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해 대선이 끝나고 탈당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 은퇴인 셈이죠"

이대순 전 체신부장관이 1994년 2월 호남대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14대 총선때 서울 강남 공천서 제외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대선후 탈당

이후 이 전 장관은 더욱 큰 아픔을 겪었다. 1993년 7월 아내를 잃은 것이다. 당시 강원도 춘천컨트리클럽 필드에서 골프를 치던 이 전 장관의 부인 나승금씨가 벼락을 맞아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이다.

"정계에서 은퇴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공직생활에만 치중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용산에 단칸방을 얻으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봉 때문에 아내는 피아노를 가르치며 생활했습니다. 화려한 생활 한번 못하고 하루 종일 피아노를 가르치느라 고단한 생을 살았지요. 사무관 때는 한 달에 반은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사생활이 거의 없었으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편히 지내면서 아내를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참 복 없는 여자지요"

이후 이 전 장관은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경대 연구원 최복실씨와 재혼을 했다.

"아내와 사별 후 외롭게 지낸 것이 불쌍해 보였든지 주변에서 둘을 맺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넘치는 여자지요. 현재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정계 은퇴 후 (사)서울오페라단 이사장과 대전엑스포조직위 교육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호남대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1994년 2월 제2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약 력

- ▲1932년 고흥군 점암면 출생
- ▲순천중·고, 서울 법대 졸업
- ▲11~12대 국회의원
- ▲체신부 장관
- ▲호남대·경원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
-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체신부 장관 경험 때문이었는지 호남대에서도 IT분야를 집중 키웠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IT분야에서 호남대의 실력은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이 전 장관은 호남대 총장 임기가 끝나자 바로 1999년부터 8대 경원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태권도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을 맡은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했지만 묘하게 태권도하고 인연이 닿았어요. 제가 경원대 총장 취임 전에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은 당시 경원대 재단 이사장이 맡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총장으로 가고 그분이 그만 두자 연맹에서 경원대에서 계속 회장을 맡았으면 어쩌느냐는 제안을 했어요. 더욱이 문교부 체육국장을 지내며 태권도의 해외 보급에 적극 지원한 이력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전 장관은 또 2005년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에 선임되고, 같은 해 6월 태권도진흥재단 설립과 동시에 이사장에 취임했다. 태권도계에서 말하는 이 전 장관은 한마디로 '성실맨'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선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열린 18회 북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그는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경기장에서 한 경기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

"태권도, 한국 대표적 문화 브랜드

2013년 태권도 공원 조성에 주력"

이 전 장관은 지난 2004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직을 그만두기 위해 총회를 앞두고 성명서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발표 하루 전에 이 전 장관을 찾아가 밤새 설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끌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무주로 입지가 결정된 태권도 공원 조성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을 하려면 문화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입니다. 태권도는 184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을 뿐 아니라 28개 공식 올림픽 종목 중 하나입니다. 태권도공원은 이 태권도란 브랜드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기와 훈련을 할 뿐 아니라 한국의 고유 문화를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태권도공원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문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전주 모양성

무병장수 염원 '성밟기 놀이' 전승

조선 문종때 개축…둘레 1,684m

염천지하 열대야다. 5월 말부터 밤에 불을 밝힌 모양성을 찾아간다. 노령 방장산 자락 서편 고을 고창을 가기위해 장성에서 솔치(松峴)을 넘는다.

마한 때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백제 때 모량부리(毛良夫里)>모양(牟陽), 신라 후기에 고창(高敞)이라 칭했다. 모두 '큰 벌'을 의미한다. 군청 남쪽 개울 건너편 읍내리의 장대봉(108m) 기슭 송죽림 숲에 성곽이 보인다.

모양성은 읍성이지만, 산성같은 분위기와 역할을 담당했고, 답성(성밟기)놀이가 전승되어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1965년 사적 제145호(165,858㎡)로 지정됐다. 1976년부터 복원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라고 한다.

수축연대는 1451(문종1)년에서 1481(성종12)년 사이며, 규모는 높이 4~6m, 둘레 1천684m다. 자연석을 다듬어 쌓았으며, 일부 절간 석재도 쓰였다. 주요 출입문은 북문인 공북루(拱北樓)였고, 동문 등양루(登陽樓), 서문 진서루(鎭西樓), 옹성 3곳과 치성 6곳이 있다. 성 밖에는 해자(垓字) 흔적도 있다.

1988년 복원된 모양성의 동헌 평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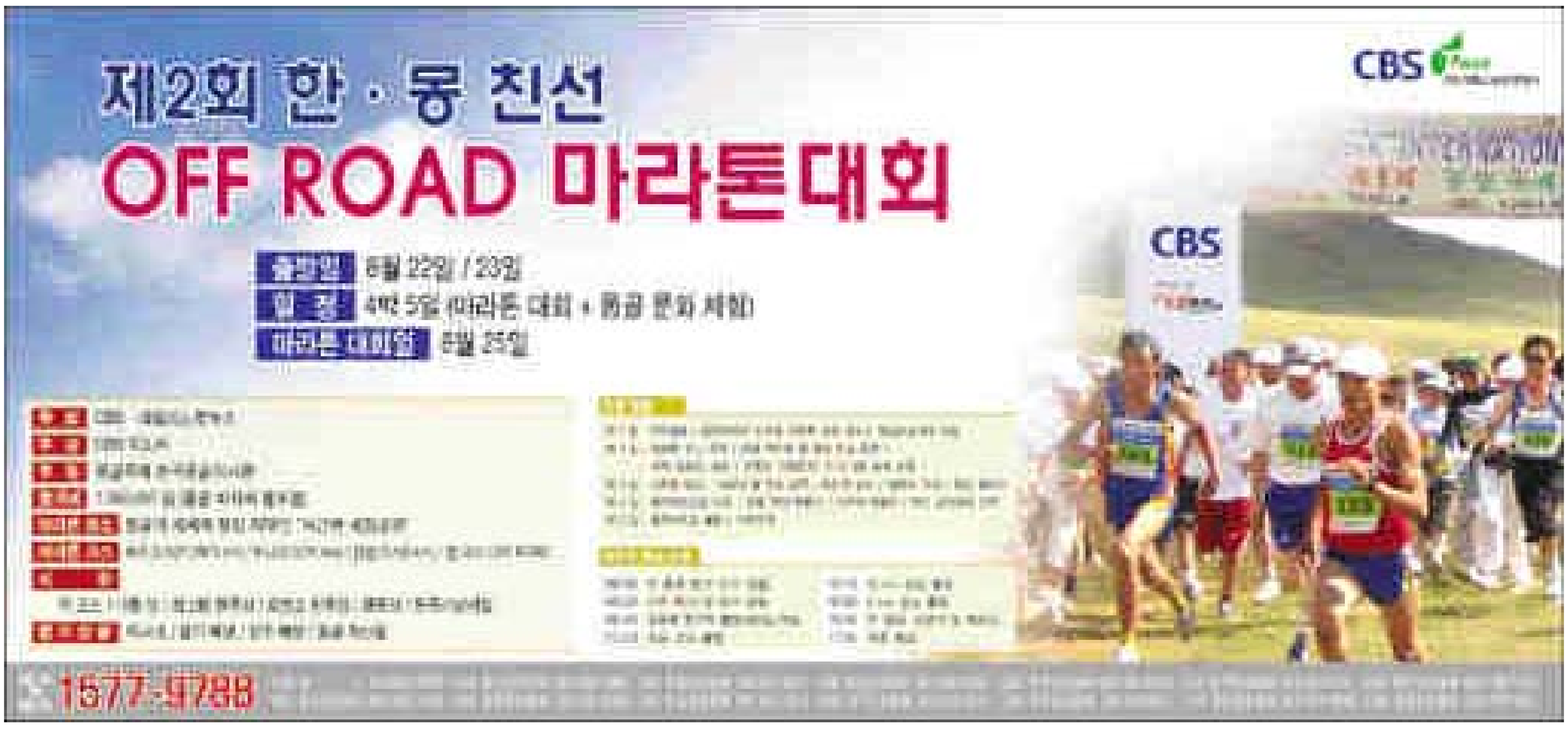
성안은 모두 관아시설만 있었다. 동헌 평근당(平近堂)을 비롯하여 내아, 객사 모양지관(牟陽之館), 작청(作廳), 향청(鄕廳), 관청(官廳), 장청(將廳), 사청(司廳), 옥(獄), 풍화루(豊和樓), 못 2, 샘 4개가 있었다. 대개 성밖에 위치한 성황당(城隍堂)이 성안에 있는 점이 특이하다.

1872년께 고창현지도에는 객사와 동문 사이에 성황사와 군기고, 객사와 동헌 사이에 사령청(使令廳)과 형사청(刑史廳), 사청 동편에 이청(吏廳), 관청과 풍화루 사이에 관노청(官奴廳), 창고 2개가 더 그려져 있다.

축성 때 여러 고을 인부들이 동원되었다는 흔적이 성돌에 새겨져 있다. 전라우도인 김제와 제주를 비롯한 14곳과 좌도 담양과 순창 포함 5곳이다. 1997년 읍성 어귀 광장에 고을표석 안내도를 세우고, 현재 해당 시군 깃발을 달았다.

향청 앞에는 1866(병인)년에 비문을 만들고, 1871(신미)년에 세운 척화비(斥和碑)도 있다. 성안에 1960년 설립했던 고창여고는 1986년 교촌리로 이사 갔다.

답성놀이는 모양성만이 가진 독특한 모습이다. 성을 한 바퀴 돌면 30~40분 걸린다. 윤달에 여자들이 손바닥만 한 돌을 머리에 이고 한 번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번 돌면 무병장수, 세 번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관에서는 성을 유지·보수하는 목적으로, 민간에서는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뜻에서 이어진 훌륭한 전통문화다. 1971년부터 해마다 음력 9월 9일이면 모양성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